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7	07. 04	07. 11
대 표 기 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성 경 봉 독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유미영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읽기 - 역사서(수~에) 1일 5장 읽기 7월 22일(60일)까지
2. 말씀 나눔 - 7월 1일부터 신청하신 교우들로 새롭게 진행됩니다(전교인 대상)
3. 귀국 - 김남희, 이수현 집사 가정(예은, 은성, 은우) - 21일 Hamburg 공항
4.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13장 다같이
 기 도 Gebet 이수현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삼하 19 : 24 -30(구p494)..... 이수현 집사
 설 교 Predigt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15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영희 시무권사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어떤 젊은이가 더 깊은 삶과 십자가에 못박힌 삶을 가르치는 늙은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로하신 분이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네. 우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지. 그렇습니다. 오직 한쪽만 바라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일을 끊은 사람입니다. 연로한 성도가 다시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곧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집을 떠나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편하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경멸스러운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연로한 성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자신의 계획이라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모두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의 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언덕에 올라가 죽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다시 살기 위해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거룩한 보물입니다. 십자가는 성도 안에 있는 옛 본성, 즉 아담의 본성을 멀하여 끝을 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리시며, 성도에게서 새 새명이 시작됩니다.

철저한 십자가 / A. W. Tozer 목사
(1963년 5월 사망)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낳기에 결코 후회가 없다.**
- J. B. Phillips (영국, 1982년 사망) -